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에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2026.2.15.

사도행전 10:24~25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오늘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장교의 충격적인 인사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결과가 있기 전, 그 입구에서 벌어진 아주 짧지만 충격적인 한 장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십시오.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이탈리아부대'라고 첨언까지 하는 것으로 보면, 그 로마 장교 중에서도 정통 로마 엘리트 장교죠.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의 허리에는 날카로운 로마의 칼이 차여 있고, 그의 어깨에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갑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는 명령 한마디면 식민지 백성들쯤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자입니다.

반면, 오늘 그를 찾아온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배를 받는 유대 땅, 그중에서도 가장 촌동네인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투박한 손, 세련되지 못한 말투, 화려한 관복이 아닌 허름한 옷차림을 한 피정복민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라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까? 로마 장교 고넬료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고, 어부 베드로가 들어와서 굽신거려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내려다보며 "어, 자네 왔는가? 거기 앉게"라고 손짓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

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25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절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오 (proskuneo)'입니다. 이 단어는 친구에게 가볍게 목례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납작 엎드리는 것, 혹은 신이나 왕에게 행하는 '최상의 경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예배'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죠.

천하의 로마 장교가, 식민지 어부의 발 앞에 오체투지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만한 로마 군인을 이토록 낮아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비굴해서일까요? 겁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고넬료가 '진짜 강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 들판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숙이 텅 빈 쪽정이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치며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에 든 것이 없으니 겉으로라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고개를 쳐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곡이 짙은 벼 이삭을 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땅으로 떨굽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짙어간 쌀알의 무게, 그 '생명의 무게'가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계급장보다 더 무거운 '영적인 무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은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0:2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내면은 텅 빈 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꼭 차있었고, 매일 쌓아 올린 기도의 분량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묵직함이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반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아시지요? 진짜 부자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고수는 무용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영적인 척, 거룩한 척하며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목에 힘을 줍니까? 언제 남을 무시합니까? 내 안이 비어 있을 때입니다. 내 영혼이 가벼울 때입니다. 내가 무시당할까 봐 겁이 날 때 우리는 과장된 몸짓으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면이 꼭 찬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여유'이자 '성숙의 증거'입니다. 버가 익어가듯,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수록 우리의 고개는 낮아져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넬료의 내면 상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정복군 장교였지만, 피정복민인 유대인들에게조차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22절). 보통 점령군 장교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까지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누구 앞에서도 군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이 거만해지고 공격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Insecurity)'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고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공격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며칠 전,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엄청난 '응답의 확산'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절대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굳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까지 못합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하는 계급장이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안심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통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자꾸 부딪히십니까? 직장에서 왜 동료들과 날을 세우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불안해서는 아니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손해 볼까 봐,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그래, 당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셔"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은 악한 자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강한 자가 넉넉하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겸손은 바로 이 탄탄한 영적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평안에서 나왔습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었다는 '기대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2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이튿날 가이 사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그가 베드로를 통해 주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 혼자 듣기 아깝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 올 것이다!" 하는 벅찬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리 항복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들겠나이다. 당신의 종이 들겠나이다." 이 납작 엎드린 마음이 바로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산꼭대기에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골짜기로 모여들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산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머물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애기네", "설교가 왜 저래?", "저 사람은 학벌이 어찌고..." 하며 판단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심령은 메마른 산봉우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지위, 권위, 경험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골짜기처럼 낮추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드름을 피우며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어디 한번 들어나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라고 했다면, 그날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납작 엎드린 마음'이 성령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44절).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그릇은 어디에 있습니까? 판단하는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의 무릎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라는 멋진 신앙인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유대인 어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사람. 그의 이 겸손한 무릎이 그와 그의 가정, 그리고 이방인 전체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보다 더 놀라운 분이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씻겨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발 아래 엎드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빌립보서 2:6~8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남을 굴복시키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이 진짜 승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잠언 18:12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남편을 이겨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말로 굴복시켜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과 싸워서 이기면 행복합니까? 이기려고 바득바득 우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진 것입니다.

진짜 승리자는 고넬료처럼, 예수님처럼 먼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나의 평안함이 당신의 날 선 공격을 이깁니다." "나의 겸손함이 당신의 교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강함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

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크게 보는 사람은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먼저 섬기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비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진짜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날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